

글로벌시민교육

| 새로운 교육의제 |

글로벌시민교육

| 새로운 교육의제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

기획 · 번역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오늘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 인권, 정의, 다양성 같은 지구촌 보편의 가치들을 아우르는 글로벌시민의식을 모두의 가슴속에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힘이자 출발점은 다름 아닌 교육입니다. 시의적절한 교육만이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1946년 창설 이래부터 1953년 유네스코학교사업(ASP, Associated Schools Project), 1974년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권고’ 채택, 1994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통합적 실천 요강’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기본 목표인 국제협력 및 평화의 문화 증진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꾸준히 전개·발전시켜왔습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공표하면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은 기존의 목표인 ‘교육 기회의 확대’와 ‘양질의 교육 제공’에 덧붙여 ‘글로벌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함

으로써 글로벌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Post-2015' 세계 교육의제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 및 글로벌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세계화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교육 방식을 지향하는 국제이해교육은 글로벌시민교육의 핵심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제19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선도 기관으로서 아태교육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14년 2월 한국을 방문해서 글로벌시민교육을 위해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태교육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국제이해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본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 여러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시민교육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된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 회의(2013년 9월 9-10일, 대한민국 서울)'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전역의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들과 정부·국제기구·비정부기구·청년단체의 대표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주요 이슈와 실천 사례, 개념, 우선순위, 실행 프레임워크에 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가 글

로벌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2015년은 국제사회의 향후 15년 패러다임을 결정할 새로운 발전 및 교육 목표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한국은 '2015 세계교육포럼' 주최국으로서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을 승계하는 'Post-2015' 교육의제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더욱이 교육에 힘입어 국제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글로벌시민교육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의 핵심 지원국(Champion Country)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가 글로벌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글로벌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국내의 모든 교육자, 연구자 및 실무자 여러분께 유용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우탁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 회의 결과 문서 •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외교부 및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2013년 9월 9~10일 서울에서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 회의’(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¹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문서는 당시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비롯하여, 회의를 통해 수립된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공통된 관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 문서의 토대로 사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②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 ③ 회의 중 토론 내용 ④ 회의를 위해 준비된 참고자료.² 이 문서의 최종안은 유네스코 본부의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국에서 초안작성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유네스코의 글로벌시민교육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gce@unesco.org)로 문의할 수 있다.

¹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resources/online-materials/single-view/news/unescos_seoul_consultation_deepens_understanding_of_global_citizenship_education/#.UjxKSX-bFng.

이 문서는 다음의 질문과 관련하여,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 회의록을 통해 새롭게 떠오른 공통된 관점들을 소개한다.

1. 왜 지금 글로벌시민의식과 글로벌시민교육에 주목하는가?
2. 글로벌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3. 글로벌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 왜 지금 글로벌시민의식과 글로벌시민교육에 주목하는가?

1) 교육 담론의 변화

- (1)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인지적 지식 및 능력을 보완해 주는 불가결한 요소로, 가치관과 태도 및 의사소통 기술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정치, 문화 및 전 지

구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적합성(relevance) 담보에는 평화, 인권, 평등, 다양성 수용 및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하는 교육의 역할도 포함된다.

- (2) 글로벌시민교육은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역량 있는 글로벌 시민의 양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향후 8년간 유네스코 교육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학습 성과 및 역량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위한 작업을 학습지표연구위원회(Learning Metrics Task Force)가 진행하고 있다.

- (3) 이와 같은 교육 담론의 변화로, 글로벌시민교육은 21세기와 그 이후까지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 기술 · 역량의 일부로 ‘Post-2015’ 개발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2) 사람과 장소의 상호 의존 및 연결의 증대

- (1)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2 회의 참가자: a)전문가: 바달 알 카루시(Badar Al Kharusi), 셜 보도(Shem Bodo), 장보스코 부테라(Jean-Bosco Butera), 알리샤 카베주도(Alicia Cabezudo), 랄프 카스텐스(Ralph Carstens), 미구엘 카르발로 다실바(Miguel Carvalho da Silva), 군타스 카트락스(Guntars Catlaks), 무하마드 파우르(Muhammad Faour), 난타나 가자세니(Nantana Gajaseeni), 헤리베트 힌젠(Heribert Hinzen), 메이샤 잘봇(Maysa Jalbout), 조대훈, 로마나 지젤 카스만(Romina Giselle Kasman), 카비루 킨안쥬(Kabiru Kinyanjui), 디나 키완(Dina Kiwan), 인자이루 쿨룬두(Injairu Kulundu), 마크 레비(Mark Levy), 박순용, 미카엘라 포탄코코바(Michaela Potancokova), 페르난도 M. 라 이머스(Fernando M. Reimers), 바버라 로메로 로드리게즈(Barbara Romero Rodriguez), 크리스티나 사무디오(Kristina Samudio), 아메이라 시칸드(Ameira Sikand), 클라우스 스탈(Klaus Starl), 에시 수덜랜드애디(Esi Sutherland-Addy), 찬바오 탄(Chuanbao Tan), 스위힌 토(Swee-Hin Toh), 카를로스 알베르토 토레스(Carlos Alberto Torres) b)유네스코: 치엔 탕(Qian Tang), 김광조(Gwang-Jo Kim), 최수향(Soo-Hyang Choi), 카비르 셰이크(Kabir Shaikh), 알렉산더 라이히트(Alexander Leicht), 준 모로하시(Jun Morohashi), 저스틴 새스(Justine Sass) c)대한민국 외교부: 신동익, 마영삼, 한충희, 홍진욱, 정선미 d)대한민국 교육부: 성삼제, 강영순, 류혜숙, 김혜민 e)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정우탁, 김중훈, 엄정민, 정경화, 김효정, 지선미 f)참관인: 차윤경, 최동주, 최정순, 정용철, 한건수, 장태상, 김진희, 박홍준, 박성준, 서민희.

되었다. 비록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소통이지만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의 경험 역시 강화되었다.

(2) 사람들의 상호 의존 또한 더욱 커졌다.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소지역·지역 및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 조직 및 체제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탄생했다. 이들은 세계와 지역을 동시에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3) 국경을 넘는 이주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지역사회들이 다인종·다문화 사회 또는 ‘글로컬라이즈’(globalized)³된 사회로 나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확장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시민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뒤따르고 있다.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은 시민 행동의 집단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³ 글로컬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을 결합하여 만든 혼성어이다. <http://en.wikipedia.org/wiki/Glocalisation>을 참고.

3) 현존하는 세계적 난제

(1) 국경을 초월한 원인과 파급력을 지닌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도전과제들은 육해공의 경계를 넘어 지구적 협력과 협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지속되는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뿐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2. 글로벌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1) 글로벌시민의식

(1) 시민의식(citizenship)의 정의에 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고, 글로벌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시민의식을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식’ 또는 ‘민족국가를 초월한 시민의식’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이 글로벌시민의식보다 더 폭넓고 포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지구 보호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여전히 ‘지구 시민의식’(planetary citizenship)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2) 글로벌시민의식은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민의식은 서로에 대한 연대감과 집단적 정체성을 경험

하고 세계 차원의 집단적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느끼는, 국제사회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 그것은 공식적인 멤버십이라기보다는 사회집단의 기풍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글로벌시민의식은 집단성을 위한 심리적인 열개로,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공공 영역의 시민활동을 통해 행동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시민의식은 인권·민주주의·정의·비차별·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이 가치들을 존중한다.

2) 글로벌시민교육

- (1) **목표:** 글로벌시민교육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들에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보하도록 학습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시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글로벌시민교육은 변혁적 교육으로서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글로벌

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간이해교육 및 평화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변혁적 교육분야들에서의 경험과 교훈에 기반한다.

- (3) **전달방법:** 글로벌시민교육은 평생학습의 관점 위에 세워졌다. 어린이나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시민교육은 정규·비정규 및 비형식적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4) 대부분의 나라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은 주로 정규교육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 및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비정규·비형식적 교육의 유연하고 다양한 교수법은 정규교육제도 밖에 있는 학습자와,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학습자들에게 더욱 유용할 수 있다.
- (5) 글로벌시민교육은 기존의 교과목(시민교육, 사회과목, 사회·환경교육, 보건교육 등)의 일부분으로, 또는 독립 교과목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전자와 같이 기존 교과목에 통합시키는 접근 방식이 일반적이다.
- (6) **역량:** 글로벌시민교육의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① 구체적인 글로벌 이슈와 동향에 관한 지식과 이해, 주요 보편적 가치(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배려, 비차별, 관

용 등에 대한 인식과 존중 ②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인지적 능력 ③ 공감 능력, 다양한 경험 및 관점에 대한 열린 마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능력 같은 비인지적 능력 ④ 솔선하고 헌신하는 행동적 역량.

(7) 활성화 조건: 보편적 가치(인권, 평화 등)에 열려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또는 종교적 분위기는 글로벌시민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정책적 지지와 교육학적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지역 및 세계 차원의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경험(커뮤니티 기반의 인도주의 활동,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외국어 학습, 지역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안적·보완적 학습경로를 갖춘 학습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8) 발달의 초기 단계인 유아기 때부터 학습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시민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들은 글로벌시민교육의 촉진자이자 주요 창출자이며 교육자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의 설계·실시·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글로벌시민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9) 갈등: 글로벌시민교육에는 해결하기 쉽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모두 어떻게 하면 특수성(개인의 권리, 자기개발 등)을 존중하면서 보편성(공동 및 집단 정체성, 관심사, 참여, 의무 등)을 증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압축된다.

(10) 이러한 갈등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시민교육이 글로벌 커뮤니티와 개별 학습자 중 누구의 성과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글로벌시민교육이 세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학습자가 '21세기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교육자들은 이 두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11) 이러한 논쟁은 세계적 연대와 개별 국가의 경쟁력을 어떻게 동시에 증진시킬 것인가 또는 지역의 정체성 및 이익을 세계 차원의 정체성 및 이익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도 부분적으로 연결된다. 정체성이 민감한 문제이고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세계적 차원의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가의 시민 개개인이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 차원의 공동 이익에 관심을 가지며 또 이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

도 만일 그들의 활동이 지역 혹은 국가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 및 국가 당국에 대한 도전자로 비취질 수도 있다.

- (12) 연구와 대화는 지역의 정체성 및 이익과 세계 차원의 정체성 및 이익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갈등 또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탈중심화’(de-centering)의 개념 역시 앞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그들의 지역 현실로부터 벗어나 다른 현실과 가능성의 비전을 갖게 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탈중심화 접근법은 지역과 세계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함으로써 지역·세계의 이분법적 간극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

- (1) 글로벌시민교육의 목표를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개념을 지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만든 글로벌시민교육의 기본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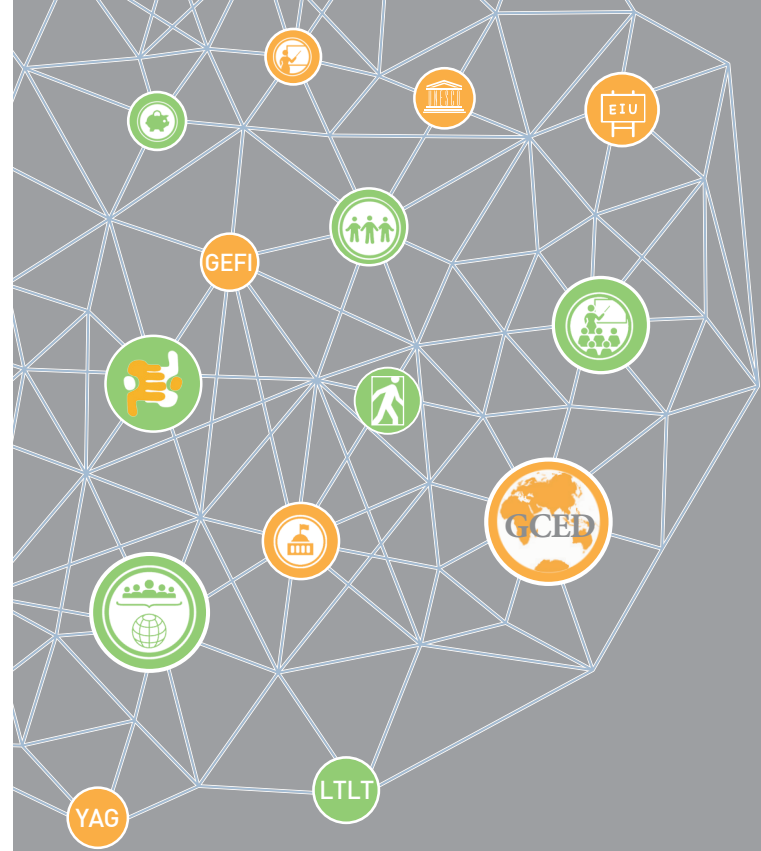
하는 몇몇 지표나 프록시는 학습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 (2) 변혁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변혁적인 교수법을 필요로 한다. ① 학습자가 실생활 속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② 학습자가 주류 담론의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단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③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희망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⑤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외부에 있거나 좀 더 넓은 사회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이 같은 교수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훈련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3) 청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의구심이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관점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 행위자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다채롭고 효과적인 의견과 해결책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2) 지식과 경험의 공유

- (1) 글로벌시민교육은 그 개념이 명료하게 정립되기 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평가를 포함한 정보와 경험을 더욱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과 성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시민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유의할 것이다.
- (2) 글로벌시민교육에는 서로 다른 지역, 분야 및 인구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이끌어 내고 글로벌시민교육의 목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은 세계와 지역, 국가, 지역 사회 등 모든 차원에서 의사소통 및 교류의 모든 수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새로운 절차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절차와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으로 갈등을 해결한 더 많은 국가 차원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

| 전문가 회의 사진자료 |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Towards a Culture of Peac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An Emerging Perspective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

• Outcome documen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his document draws on inputs to, and common perspectives emerging from, a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ganized by UNESCO and the Republic of Korea (i.e.,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and of Education, and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Seoul on 9-10 September 2013.¹ Informing this draft document are: ① responses from the expert participants to a questionnaire circulated by UNESCO in advance of the consultation; ② presentations from experts during the consultation; ③ discussions during the consultation; and ④ reference material contributing to, and prepared for, the consultation.² The final draft of this document was prepared by UNESCO's Division of Educ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Headquarters in Paris, with the assistance of a drafting team. Inquiries on UNESCO's work on global citizenship

¹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resources/online-materials/single-view/news/unescos_seoul_consultation_deepens_understanding_of_global_citizenship_education/#.UjxKSX-bFng.

education can be addressed to: gce@unesco.org

The document intends to present common perspectives emerging from the consultation on the following questions:

1. Why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ow?
2. What i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3. What needs to be done at the global level to support and promot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1. Why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ow?

1) Shifts in education discourse

- (1) Education in a globalized world is increasingly putt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values,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kills as a critical complement

2 Contributors: a) Experts: Badar Al Kharusi, Shem Bodo, Jean-Bosco Butera, Alicia Cabezudo, Ralph Carstens, Miguel Carvalho da Silva, Guntars Catlaks, Muhammad Faour, Nantana Gajasen, Heribert Hinzen, Maysa Jalbout, Dae-Hoon Jho, Romina Giselle Kasman, Kabiru Kinyanjui, Dina Kiwan, Injairu Kulundu, Mark Levy, Soon-Yong Pak, Michaela Potancokova, Fernando M. Reimers, Bárbara Romero Rodríguez, Kristina Samudio, Ameira Sikand, Klaus Starl, Esi Sutherland-Addy, Chuanbao Tan, Swee-Hin Toh, Carlos Alberto Torres; b) UNESCO: Qian Tang, Gwang-Jo Kim, Soo-Hyang Choi, Kabir Shaikh, Alexander Leicht, Jun Morohashi, Justine Sass; 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Dong-Ik Shin, Young-Sam Ma, Choong-Hee Hahn, Jin-Wook Hong, Seon-Mi Jeong; d)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Sam-Jae Sung, Young-Soon Kang, Hyea-Sook Ryoo, Hye-Min Kim; 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Utak Chung, Jong-Hun Kim, Jeong-Min Eom, Anna Chung, Hyo-Jeong Kim, Sun-Mi Ji; f) Observers: Yun-Kyung Cha, Dong-Ju Choi, Jung-Soon Choi, Yong-Chul Chung, Geon-Soo Han, Tae-Sang Jang, Jin-Hee Kim, Heung-Soon Park, Sung-Choon Park, Minhee Seo.

to cognitive knowledge and skills. The education community is also paying increasing attention to the relevance of education in understanding and resolving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global issues. This includes the role of education in supporting peace, human rights, equity, acceptance of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2) The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launched in 2012 by the UN Secretary-General, includ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one of its three priorities. Within UNESCO, educ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being proposed to be the overarching goal of its education programme for the next 8 years, with empowered global citizens as an objective. Work is underway through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to define what is required to support young people become “citizens of the world,” including learning outcomes and competencies.

- (3) There is a clear opportunity to include reference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s part of the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that learners require in the 21st Century and beyond.

2) Increasing interdependence and interconnectedness of people and places

- (1) Phenomenal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have enabled people to connect and interact with others around the globe anywhere, anytime. This has contributed to an intensified perception and reality of being interconnected and living beyond local perimeters, albeit virtually.
- (2) People have become also more interdependent. Participation in sub-reg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bodies and structures of all sectors, including private enterprises and civil societies, has created new stakeholders that reach beyond national borders. They are required to think and act globally and locally at the same time.
- (3) Increased transnational migration is making communities inevitably more heterogeneous or “glocalized,”³ and the necessity of learning how to live together more acute. The expansion of democracy globally has led to an accompanying demand for civic and other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by citizens. In

³ “Glocalisation is a portmanteau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See <http://en.wikipedia.org/wiki/Glocalisation>.

addition, various social movements taking plac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ave demonstrated the collective power of citizen action.

3) Ongoing global challenges

- (1) Tensions and conflicts among populations which have causes and impacts beyond national boundaries continue. Challeng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climate change, are demonstrating the need fo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yond land, air, and water boundaries. Continuing global challenges call for collective actions at the global level as well as at the local level.

2. What I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1) Global citizenship

- (1) The definition of citizenship itself is contested, and a widely agreed definition of global citizenship is yet to be developed. Some have called global citizenship ‘citizenship beyond borders,’ or ‘citizenship beyond the nation-state.’ Others have noted that ‘cosmopolitanism,’ as a term, may be broader and more inclusive than global citizenship; or still others opt for ‘planetary citizenship,’ focusing on the global

community's responsibility to preserve the planet Earth.

- (2) In all cases, global citizenship does not entail a legal status. It refers more to a sense of belonging to the global community and common humanity, with its presumed members experiencing solidarity and collective identity among themselves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at the global level. Global citizenship can be seen as an ethos/metaphor rather than a formal membership.
- (3) Being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collectiveness, global citizenship can, and is expected to, generate actions and engagement among, and for, its members through civic actions in the public domain to promote a better world and future. And it is, necessarily, based on and respects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democracy, justice, non-discrimination,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among others.

2)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1) **Go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ims to empower learners to engage and assume active roles both locally and globally to face and resolve global challenges and ultimately to become proactive contributors to a more just, peaceful, tolerant, inclusive, secure and sustainable world.

- (2)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transformative, giving learners the opportunity and competencies to realise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o promote a better world and future. It draws upon learning from other transformative education processes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for inter-national /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education for peace.
- (3) **Deliver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built on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It is not only for children and youth but also for adults. It can be delivered in all modes and venues of delivery, includ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 (4) The formal system, in most countries, could be the main mode of delivery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t needs, however, to be complemented by the non-formal and informal systems. In these systems, flexible and variable pedagogical approaches may be more useful in targeting populations outside the formal system and those who are likely to engage with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g., social media).
- (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 be delivered as an integral part of an existing subject (e.g., civics or citizenship education, social studies, social/environmental studies, health

education, etc.) or as an independent subject area. The former, mainstreaming, approach is commonplace.

(6) **Competencies:** Core competenci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clude: ①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specific global issues and trends, and knowledge of and respect for key universal values (e.g., peace and human rights, diversity, justice, democracy, caring, non-discrimination, tolerance); ② cognitive skills for critical, creative and innovative thinking, 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 ③ non-cognitive skills such as empathy, openness to experiences and other perspectives, interpersonal/communicative skills and aptitude for networking and interacting with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and origins; and ④ behavioural capacities to launch and engage in proactive actions.

(7) **Enabling/facilitating conditions:** A political, societal, cultural or religious climate that is open to universal values (e.g., human rights and peace) is crucial for the promotion of the goal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ffective implementation requires policy support and pedagogical guidance. The learning environment should promote links to communities (both local and global), and links for learners to real-life experiences (e.g., community-based humanitarian activities, student foreign

exchange programmes, foreign language, area/regional studies) as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paths of learning.

(8) It is important to reach learners early, in their formative early childhood stages of development. Young people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y can be catalysts and demand-creators, educators/trainers and inform programme design, delivery and evaluation. They must be regarded as an important stakeholder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9) **Tensions:** There are tensions with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hich are not irreconcilable but merit some attention. Varying in form, they all point to the question of how to promote universality (e.g., common and collective identity, interest, participation, duty), while respecting particularity (e.g., individual rights, self-cultivation).

(10) One tension pertinent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whethe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promote global community outcomes or outcomes for individual learners. The former position highlights w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 contribute to the world, while the latter focuses on what the area can do for individual learners as per their acquisition of “21st Century skills.” Some educators maintain that these

two goals can and ought to be seen as compatible.

- (11) The debate also relates, in part, to the question of how to promote, simultaneously, global solidarity and individual national competitiveness or how to bring together local and global identities and interests. In countries where identity is a sensitive issue and solidifying the national identity itself is a challenge, room for promoting a sense of citizenship at the global level could be limited, although this does not necessarily belie a lessened desire of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se societies to connect and interact globally. Similarly, citizens showing concerns about, and taking actions for, the communal benefits of the globe, could be believed to cause challenges to local/national authorities if their actions are perceived to be in conflict with local/national interests.
- (12) Research and dialogue could facilitate the reconciliation of local and global identities and interests. Furthermore, under the perspective of diversity, these tensions can also be seen to have a value. The notion of “de-centering” is also an approach to these questions. Emphasising the gradual process to de-center learners from their local realities and connect them to, and provide them with, a vision of

other realities and possibilities, the concept views *local vs. global* on a continuum, closing the dissected gap between the two.

3. What Needs to Be Done?

1) Country-level implementation

- (1) Reflecting the goal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countries' curricula i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This involves the translation of globally accepted concepts into local contexts. A guiding framework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t the global level could help this task. Some indicators or proxies that capture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ll also be of use for monitoring/assessing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learning.
- (2) Transformative education requires transformative pedagogy that: ① encourages learners to analyse real-life issues critically and to identify possible solutions creatively and innovatively; ② supports learners to critically revisit assumptions, world views and power relations in mainstream discourses and consider people/groups systematically underrepresented/marginalised; ③ respects differences and diversity; ④ focuses on

engagement in action to bring about desired changes; and ⑤ involves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those outside the learning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and in the larger circle of the society. Education managers and educators need additional training and support to implement/deliver such pedagogy.

- (3) There is a need to support youth-led initiatives.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are also needed. Utilisation of new ICTs is critical. New approaches may meet with reservation and/or resistance. An emerging perspectiv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owever, maintains the need for stakeholders and actors to be open to different, but effective venues and solutions.

2) Sharing of knowledge and experiences

- (1) In many ways, practice is farther ahead than conceptual clarity and broader sharing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at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cluding evaluations, would be of value. A forum where concerned stakeholders, including young people and adults, could come together and address and debate related issues would also be of use.
- (2)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ust reflect the voices of diverse stakeholders from different regions, sectors

and populations. A network of stakeholders, who could meet for periodic discussions, can help continually renew interests and reconstruct the objectiv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strong network and expertise must be made available at all levels – global, regional, national and community levels, via all means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 (3) The effort to create, if necessary, a new process or mechanism of networking and partnership should build on existing ones.
- (4) To address the tensions, research and dialogue would be needed. More country-level exampl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reconciling the tensions would also be of valu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글로벌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2014년 11월 14일 1판 1쇄 발행

기획·번역 김중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정경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장
김지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 전문관
김지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 전문관

제작대행 (주)한림출판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4

ISBN 978-89-7094-802-7 02370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 02-774-3956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송 02-774-395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는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본부가 2013년에 발간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를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기획·번역한 것입니다.
- 이 책에 담긴 사진 및 표지 디자인은 원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에 없는 것으로, 저작권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있습니다.